

공군사관학교 제51기 졸업 및 임관식 치사

친애하는 공군사관학교 졸업생 여러분,

사관생도와 공군장병, 그리고 학부모와 내빈 여러분,

공사 제51기 여러분의 졸업과 임관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학교장 박성국 장군을 비롯한 교수진과 훈육관 여러분, 그리고 학부모 여러분
께도 깊은 감사와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사의 강도 높은 교육과정은 군에서도 정평이 나 있다고 합니다. 그동안 졸업
생 여러분 모두,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특히 열일곱 명의 여성 졸업생, 그리
고 태국에서 온 지티판 생도의 남다른 성취에 각별한 격려를 보냅니다.

이제 여러분은 영광스런 대한민국 공군장교로 새롭게 출발합니다. 성무대의 등
지를 떠나 저 높은 하늘로, 우주로 힘차게 비상합니다. 여러분의 힘찬 도전은 우
리나라와 우리 공군의 창창한 미래를 보여 주고 있습니다. 한없이 믿음직하고 자
랑스럽습니다. 아울러 '보라매의 산실'인 공군사관학교는 오늘 제51기 졸업생
을 배출하면서 새로운 반세기를 시작합니다. 이를 계기로 공군사관학교가 공군
의 발전을 선도하는 세계 일류의 교육기관으로 발돋움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졸업생 여러분, 그리고 사관생도와 공군장병 여러분,

지난해 우리 국민은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참여정부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참여정부는 국민의 뜻을 받들어 '국민과 함께 하는 민주주의', '더불어 사는 균형발전사회', 그리고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시대'를 열어 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앞에는 아직 넘어야 할 고비가 적지 않습니다. 이라크 사태가 긴박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세계의 경제상황이 매우 불안정합니다. 북한 핵문제도 심각한 현안입니다. 우리는 이 고비를 슬기롭게 넘어서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힘과 뜻을 모으면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가장 시급한 과제는 한반도의 평화정착입니다. 대결과 긴장으로 얼어붙은 땅에서는 희망과 번영을 꽃피울 수 없습니다. 튼튼한 안보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우리 군은 현존하는 위협은 물론 세계 안보정세의 어떠한 변화에도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추어야 합니다.

나는 국군의 통수권자로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 군과 함께 대한민국의 평화와 안정을 지켜낼 것입니다. 북한 핵문제는 반드시 평화적으로 해결되어야 합니다. 북한과의 대화는 물론 미국·일본과의 협조, 그리고 중국·러시아·EU를 포함한 대화와 협력의 틀이 활성화되어야 합니다. 나는 북한 핵문제를 대화로써 풀어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졸업생 여러분, 사관생도와 공군장병 여러분,

현대의 안보상황에서 공군력은 가장 강력한 전쟁 억지력입니다. 우리 공군 역시 확고한 한·미 연합방위태세하에서 국가안보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군이 가야 할 길은 분명합니다. 과학군·기술군을 육성하는 데 더욱 주력해야 합니다. 전력을 지속적으로 첨단화하여 자주적 방위역량을 강화해야 합니다. 조기경보기와 공중급유기를 비롯한 첨단 정보역량과 전략임무 수행능

력을 갖추어 나가야 합니다. 100년을 내다보는 거시적 안목으로 전략형 공군력을 건설하고, 나아가 '항공우주군'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착실히 구축해야 합니다.

공군력과 과학기술력, 그리고 항공우주산업은 서로가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공군은 특히 항공우주산업 발전에 크게 공헌해 온 만큼, 앞으로 그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입니다. 지금까지 공군은 산·학·연 협조체제하에서 국산 항공기의 개발을 주도해 왔습니다. 우리 기술로 만들어낸 KT-1 훈련기가 지금 수출시장에서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시험비행에 성공한 T-50 초음속 항공기도 머지않아 양산 단계에 들어갑니다. 이와 같은 추세로 가면, 늦어도 2015년까지는 최신편 국산전투기의 개발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졸업생 여러분은 이처럼 원대한 공군의 비전을 실현해 갈 주인공들입니다. 대한민국이 동북아의 중심국가로 우뚝 서는 날, 여러분은 선진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대한민국 항공우주군'의 주역이 될 것입니다.

친애하는 공사 51기 신입장교 여러분,

여러분의 선배들은 지금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열악한 여건에서 '빨간 마후라'의 신화를 창조해 냈습니다. 필승공군의 명예를 지키며 조국의 영광을 사수해 왔습니다. 이제부터는 대한민국의 안보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불굴의 도전정신으로, 선배들이 쌓아 온 필승공군의 전통을 더욱더 찬란하게 이어 주기 바랍니다. 영공수호의 막중한 사명을 완수해 주기 바랍니다.

21세기는 하늘을 지배하는 자가 세계를 지배하는 시대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늘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나와 우리 국민은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할 것입니다. 공사 51기 여러분의 앞날에 무운과 영광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